

2019년 12월 시청자위원회

2019년 12월 18일 (수) 오전 11시

대전MBC 대회의실

참석 : 김선재 시청자위원장, 권부남 부위원장, 박상민 위원, 서한나 위원, 양선희 위원, 김종남 위원

신원식 대표이사, 이재근 경영국장, 박선자 편성국장, 신영환 보도국장, 서주석 미디어전략국장, 정수진 방송기술센터장, 임세혁 경영심의부장

개회

지금부터 12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대표 인사 :

프로그램과 회사에 대한 시청자위원회의 많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2019년은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 해로 노력해왔습니다. 뉴스는 시청률 상승중이고 뉴스 신뢰도에 대한 부분에서도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도 시청자 액세스 프로그램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콘서트 오롯이 당신, 전체 프로그램 평가에서 특별상. 주로 다큐멘터리들이 상을 받았는데, 정규 프로그램으로는 유일하게 받았다.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서 이달의 PD상을 수상. 지역중심 시청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사랑받는 한해였다.

시청자위원 대표 인사 :

12월은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올 한해도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잘 헤쳐나가는 한 해로 기억되지 않을까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시청자위원들의 의견이 도움이 되었다면, 시청자위원회의 대표로서 저도 자긍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내년에도 보다 더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대전MBC가 지역방송으로서 사랑받는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회의 :

그럼 지금부터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민 위원 :

저는 8일에 방영된 노정렬의 시시각각, 서해안 유류피해 12년,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반도 130만명의 국민들의 자원봉사가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서해안 환경이 얼마나 복구되었는지, 궁금했는데, 구석구석 세심한 부분까지 소개해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상부분에서 10% 보상에 그쳤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알린 점은 좋았지만, 법적 경제적 대응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방안도 이야기 되었으면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기억되리라 생각합니다.

7일 방송된 내가 그리는 세상 : 떠나자 대전원도심으로는 배재대 학생 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원도심의 추억이 담겨 좋았습니다. 차분한 어조로 원도심을 잘 소개했고, 아이들과 같이 가볼만한 관광명소도 흥미를 끌었습니다.

한가지 시시각각에 제안을 드리면,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관련 사람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시시각각에서 지난 10월의 부동산문제를 한번 다뤘는데, 이를 좀더 심화시켜,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 우리 지역의 부동산 문제를 한번 다뤄 보았으면 합니다.

양선희 위원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보도와 선거 관련 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선거보도도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선거보도에 있어서, 대전MBC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이 중원의 승부처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데, 너무 전형적인 표현이면서, 게임이나 전쟁과 비교하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유권자들은 이런 단어에 염증이나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른 용어나 표현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일 방송된 전국 청년상인 네트워크 통합워크숍 대전개최 뉴스의 경우, 기자의 리포팅과 영상이 서로 맞지않아 어색한 뉴스가 되었습니다. 뉴스 제작시 멘트와 영상이 좀 더 매칭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2일 방송된 원자력 안전연구소 블라인드 채용관련 뉴스에서 중국 국적자 채용 관련 상반된 인터뷰 2개가 연이어 방송되었는데, 상반된 인터뷰로 보기에 는 미흡한 점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상반된 의견을 담은 인터뷰를 서로 대조 시킬때, 대부분은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의 대립구도로 대비시키는데, 문제 있다는 측의 인터뷰 내용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대비로 보기에 는 적절치 않은 배열이었습니다.

16일 방송된 뮤지컬 소년 이순신 관련 보도는 지역의 색다른 문화소식을 잘 다룬 뉴스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최근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휴가 때문인지, 주중 앵커가 자주 변동되고 있는데, 메인 뉴스 앵커로서의 연속성문제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내가 그리는 세상, 독도탐방기, 우리의 영토 독도는 영상미는 부족했지만, 좋은 시도라는 생각이고, 7일 방송된, 떠나자, 대전원도심으로는 소재는 중복의 느낌이지만, 제작의 차별화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14일 방송된 기묘한 이야기 학교에서...는 드라마 형식의 기묘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주말 아침에 보기에 는 적절하지 못한 시도로 생각됩니다.

노정렬의 시사각각, 천안 일봉산 개발 논란에서는 패널들 간의 호흡은 좋았지만, 시민대책위, 관련 교수만 출연하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시청의 행정담당 등이 출연했으면 보다 심도 깊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패널이 나와서, 자료를 제시할 때, 시청자들은 확인이 안되는 부분은 정확한 클로즈업이나, 별도로 촬영후 편집 등의 작업으로 후처리 하는 방안도 고민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부남 부위원장 :

오롯이 당신, 특별편을 아주 재미있게 보았다. 택배기사가 주인공이었던 특별

편은 깊은 감동을 주는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침이 좋다 관련해서 지난 11월 26일 방송된 부분을 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유익한 내용으로 채워져 즐겁게 시청하였습니다. 마을탐구 생활에서 숨겨진 대전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 특히 유익했는데, 회덕정을 소개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2월 11일 뉴스데스크에서 민식이법 통과와 관련 대전과 충청의 비교 기사는 지역의 관점에서 뉴스를 다루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날 뉴스중 아쉬웠던 점은 국방과학연구소 사건이후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는데, 노조 결성과 관련 합법 불법 문제 다루고, 폭발사고 문제 원인 오리무중이라는 기사가 연이어 보도 되어, 폭발사고와 노조 결성문제를 순서를 바꾸는게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주변에서 대전MBC 라디오 FM 모닝쇼를 많이 듣고 있고, 코너로 운영되는 떡도 먹은 경험이 있는데, 프로그래머중 우리말 찾기 코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너가 재밌기는 한데, 조금 어렵다는 평이 많습니다. 어려운 우리말보다, 상식이나 힘이 되는 글귀 등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며, 보다 쉽고 아름다운 단어를 찾아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거보도 관련해서 청소년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연령 18세로 내리는 것에 관해서 보다 심도있게 다뤘으면 합니다.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생각처럼 마냥 어리지만은 않습니다. 투표 연령 하향의 문제도 함께 다루었으면 합니다.

서한나 위원 :

저는 노정렬의 시시각각을 꼼꼼하게 시청해 보았습니다. 15일 방송된 김용균 노동자 1주기 문제를 유익하게 시청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가 어찌면 이 사건의 본질일 수 있는데, 초반에 이러한 문제가 언급이 없어 답답하다가, 후미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와 가까스로 균형을 이룬 느낌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안배부분을 신경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시시각각에서 이제까지 어떤 문제를 다루었나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합니다. 한국 여성 80%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기사도 있는데요, 청년층, 여성층의 이야기를 좀 더 다루었으면 합니다.

김종남 위원 :

저도 시시각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보면, 그간 지역의 이슈들을 잘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8일 방송된 서해안 유류피해 12년은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고 리마인드 할 수 있어서, 각별히 관심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그리는 세상은 거칠기는 하지만 정규방송과 달라 오히려 신선함이 있습니다. 7일 방송된 떠나자 대전원심으로 편을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13일 방송된 뉴스중에서 문화다양성 조례안의 경우 이슬람과의 갈등에 초점을 맞춘 시각은 너무 편협하고 편중된 시각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은 수능이후 청소년들이 자유로운 시기이고, 교육정책이 바뀌는 중간이라서, 입시와 청소년에 대한 부분도 보다 다루었으면 합니다.

김선재 위원장 :

14일 전국이 보인다에서는 대전의 이야기인 시립미술관의 이야기를 다뤄 흥미있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쉬운 점은 한 프로그램 내에서 자막이 전부 달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시각각의 경우, 좋은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이 많은데, 제목만 나와있어 아쉽습니다. KBS 대전총국과 비교해보면, 더 심각한데, 방송 내용을 첫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주었으면 합니다.

박선자 편성국장 :

뉴스화면 중 내용과 화면의 일치문제는 제작팀이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뉴스앵커의 휴가로 인한 교체 문제는 저희도 고민이 많은 사안입니다. 인력이 풍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희생만을 강요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FM 모닝쇼 우리말 퀴즈의 경우 난이도 조정을 제작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이 보인다는 자막 붙일치는 한 사에서 모든 코너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별로 모아진 콘텐츠에서 선별해서 방송하는 시스템이라서 자막의 일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영환 보도국장 :

말씀하신 내용들은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뉴스 소재에 대한 부분과 유튜브 사이트 운영부분도 점검 하겠습니다. 총선관련보도는 가장 중립적이고 신뢰성 있는 보도제작을 준비중입니다.

김선재 위원장 인사 :

시청자위원분들과 회사의 간부 분들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좋은 의견 주시고,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